



2022 신안 자전거 2차대회가 4일 오전 신안 안좌도 일대에서 열렸다. 비경쟁 투어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해안도로를 타고 보라색으로 꾸며진 섬 일주를 하고 있다. /신안=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퍼플섬 비경 즐기며 '행복한 페달'

안좌도서 신안 자전거대회 2차 라이딩 열려... 전국 동호인 300여명 참가

국내 섬 관광지를 대표하는 신안 '퍼플(Purple·보라색) 섬'을 둘러보는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Happy Riding) 2차 라이딩이 4일 신안군 안좌도(안좌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1004스포츠클럽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사)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가해 라이딩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세계적인 관광지인 안좌도의 비경을 만끽했다.

이들은 안좌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 마진리~서서리~방월~자라대교~신안군자라도 출장

소 등 39km 코스를 달리며 청정섬의 공기를 호흡했다.

신안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자치단체 2곳 가운데 한 곳에 포함될 정도로 청정한 섬이다.

비경쟁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라이더들은 안좌도의 구석구석을 여유있게 둘러봤다.

신안군이 보라색을 활용한 '색채 마케팅'으로 '반월·박지도'는 여행명소로 주목받았다. 일명 '퍼플 섬'으로 올 현재 40만명이 퍼플섬을 찾았다. 섬으로 들어가는 목교가 보라색으로 칠해져있고, 계절마다 보라빛 꽃망울을 터운다. 지난해 12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세계 최

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신안군 안좌도 남단 두리선착장에서 박지도까지는 보라색으로 온통 칠해진 547m 길이의 보행교로 연결된다.

행사는 신안의 비경을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알리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측은 대회 참가 기념품을 비롯해 경품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자전거 용품 등을 제공했다.

한편, '2022 신안 자전거 대회' 1차 행사는 증도에서 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lesse@kwangju.co.kr

토너먼트 첫 골 메시 '라스트 댄스'는 계속된다

16년 묵은 징크스 깨고 선제골 아르헨, 호주 2-1 승리 8강 진출 네덜란드, 미국 3-1 격파 8강행

첫 월드컵 우승을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가 지긋지긋했던 징크스 하나를 깨다.

메시는 4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전 선제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2-1 승리에 앞장섰다. 아르헨티나는 준우승한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8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호주는 메시가 공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메시는 전반전 중반까지 공을 거의 터치하지 못했다.

그러나 멕시코전에서 후반전 선제골을 뽑아내 2-0 승리의 물꼬를 텄던 메시는 이날도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35분 골 지역 정면에서 예리한 왼발 땅볼 슈팅으로 골대 왼쪽 하단 구석을 찔렀다. 수비수 3명이 달려들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슈팅은 이날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첫 유효슈팅이었다.

메시와 아르헨티나 팬들의 16년 묵은 '응어리'를 푸는 슈팅이기도 했다.

이날 득점은 메시의 소속팀과 대표팀 기록을 통틀어 789번째 골이었다. 그가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득점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메시는 2006년 독일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만 1골을 넣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다.

팀이 준우승을 차지한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메시가 4골이나 넣었는데, 모든 득점이 조별리그에서 나왔다. 정작 더 중요한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아르헨티나가 16강 탈락한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도 메시는 조별리그에서만 1골을 넣는 데 그쳤다.

한편,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4일 대회 16강전에서 미국을 3-1로 물리치고 가장 먼저 8강에 올랐다.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와 10일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에서 메시가 첫 골을 터뜨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통·화합으로 광주체육 증흥기 열겠다"

전갑수 전 광주시배구협회장, 광주체육회장 출마 선언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광주체육 증흥기를 열어 체육인에게 자부심을 주고 시민 건강과 행복을 행기는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갑수(62) 전 광주시배구협회장이 4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문을 내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체육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체육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경험과 경륜 있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체육회는 체육인과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특정한 이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고 이들이 잠깐 머물러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구선수 출신인 그는 "우리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대를 위해 자비로 남자배구 실업팀을 창단해 12년 동안 운영했으며, 호남대 여자배구팀 창단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여자프로 배구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정하는 데 앞장서 결실을 이뤄냈고 광주체고 출신 선수 2명을 페퍼 배구단에 입단토록 힘을 보탤"고 설명했다.

광주체육계 갈등과 분열을 종재하는 등 화합형 리더로 평가받는 전 회장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나누어져서는 광주체육의 진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면서 "광주체육인 모두가 한 것발 아래 협력하고 상생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체육 행정을 펼쳐 한 종목단체, 선수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선 즉시 가정 '업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체육회 임원을 직능, 전공, 성별, 경력별로 적정 배분하고 체육회 업무도 직원 능력에 따



라 배치하는 등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도약하는 전문체육 ▲건강한 생활체육 ▲함께하는 구체육 ▲꿈꾸는 학교체육 ▲혁신하는 광주체육 등 공약에 담겼다.

전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기업인, 체육행정가, 시민사회발전 공헌가로서 50년 활동을 자산 삼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광주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 실업 배구연맹 부회장, 대한 경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을 맡았다. 고액기부자 클럽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06번째 회원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갑렬 전 광주체육회 부회장 '통큰 결단'

"광주체육 화합 위해 체육회장 선거 불출마"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유력후보로 꼽힌 최갑렬(사진) 전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체육계 화합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갑렬 전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은 4일 기자회견문에서 "광주체육이 사고단체로 더 이상 사분오열돼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양보라는 통큰 결단으로 회장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추후 명분있는 후보와 힘을 합쳐 광주체육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광주체육회가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넘어 화합과 진보로 가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3기 회장선거는 광주 체육계 위상을



높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광주체육계의 발전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린 결단이 광주체육발전을 위한 양보와 총정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 달 15일 체육회 임원 사퇴서를 시체육회에 제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빙속 정재원·이승훈 4대륙선수권 매스스타트 '금·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 간판 정재원(의정부시청)이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재원은 4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8분15초77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으면서 스피리트 포인트 60점으로 우승했다.

정재원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온 이승훈(IHQ·8분15초840)은 스피리트 포인트 41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원과 이승훈은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다. 두 선수는 마지막 바퀴에서 다른 선수들을 크게 따돌

렸고, 레이시 막판 스피드를 줄이며 여유롭게 결승선으로 들어왔다.

정재원은 지난달 열린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매스스타트 은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여자 매스스타트에선 박지우가 9분15초44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수들이 출전하는 메이저 빙속 대회로 2019-2020시즌에 시작했다.

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년 연속 취소된 뒤 올 시즌 재개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올빼미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3관	데시벨
4관	압구정
5관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압구정
6관	올빼미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씨네커틀	원피스 필름 레드, 동감, 본즈 앤 울, 헤이저니&리키강이 비밀의 문
8관 씨네커틀	탄생,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송년음악회 **蓋世之才** (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